

‘K-무역, 새로운 길 열다’…HD현대삼호 40억불탑

대한조선·세방전지·보해양조·엠펙스 등 지역업체 수상
양필석 호원 상무 ‘대통령 표창’…통상 갈등 악화 속 결실

대한민국 무역의 저력을 되새기고 혁신한 무역인들을 격려하기 위한 ‘제62회 무역의 날’ 기념식이 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확대에 기여한 기업에게 수여되는 ‘수출의 탑’ 시상에서 HD현대삼호㈜, 대한조선, 엠펙스㈜, 세방전지㈜, 보해양조㈜ 등 광주·전남 지역 기업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이날 ‘K-무역, 새로운 길을 열다’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등 정부 주요인사, 유관기관장, 무역 유공자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수출의 탑(1689개사) 시상과 무역진흥 유공자 포상(598명), 한국 무역협회장 표창(80명)이 수여됐다.

수출의 탑 부문은 현대글로벌비즈니스㈜ 60억

불탑, 한미반도체㈜ 3억불탑, ㈜에스엠엔터테인먼트 1억불탑 등 10개 기업 대표가 전체 수상기업을 대표해 단상에 올랐다.

특히, 현대글로벌비즈니스는 글로벌 공급망을 기반으로 반조립 부품 수출이 증가하며 60억불탑을 수상했다.

수상기업 명단 중 광주·전남 기업에서는 HD현대삼호(40억불탑), 대한조선㈜(9억불탑), 세방전지㈜(8억불탑), 엠펙스㈜(2000만불탑), 보해양조㈜(300만불탑), ㈜라도(100만불탑) 등이 이름을 올렸다.

무역진흥 유공자 포상 부문에서는 정준철 현대자동차㈜ 부사장은 스마트 제조혁신 등 공급망 안정과 신공장 준공 등으로 대미 통상 협상력 제고에 기여했다. 방태용 ㈜부광금속 대표이사는 고품질 필수 동관 개발 및 공급으로 비철금속 산



대한민국 무역의 저력을 되새기고 혁신한 무역인들을 격려하기 위한 ‘제62회 무역의 날’ 기념식이 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정준철 현대자동차㈜ 부사장은 스마트 제조혁신 등 공급망 안정과 신공장 준공 등으로 대미 통상 협상력 제고에 기여했다. 방태용 ㈜부광금속 대표이사는 고품질 필수 동관 개발 및 공급으로 비철금속 산

업 경쟁력을 강화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대통령 표창 수상자에는 양필석 ㈜호원 상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에는 나용일 ㈜호원 반장 등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글로벌 정세는 자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 국가 간 경쟁과 통상 갈등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며 “무역협회의 해외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미국, EU 등 주요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권익을 적극 대변하고 식품, 화장품 등 한류 연계 소비재를 중심으로 신흥시장을 개척함으로써 한국 무역의 새로운 길을 여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전남TP ‘The Bridge 전남’ 66억 수출협약

해외 바이어·글로벌 협력기관 1대 1 상담회 등 성과

(재)전남테크노파크는 최근 여수 소노캅 호텔에서 ‘The Bridge 전남 2025’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The Bridge 전남 2025’는 전남 중소기업의 내수·투자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마련된 통합 비즈니스 행사로, 개회식과 투자사·대기업 세미나, 해외 바이어 및 글로벌 협력기관과의 1대 1 상담회 등으로 구성됐다.

행사에는 아시아·유럽 등 세계 각지

의 바이어, 전남테크노파크 해외비즈니스센터 25개사, 포스코·한전KDN·GS홈쇼핑·HD현대삼호 등 대기업 4곳, KB인베스트먼트·블루웨일인베스트먼트 등 투자사 4곳을 비롯해 전남 소재 식품·화장품·석유화학·전기전자 분야 100개 기업 등 총 25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총 173건의 상담이 진행됐으며, 상담액은 B2G를 포함해 60억달러(약 8조5853억2천원)에 달했다. 현장에

서 체결된 수출협약 규모는 약 451만달러(약 66억원)로, 전남 기업의 글로벌 진출 기반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성과를 거뒀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남도는 ‘성장사다리 지원사업’을 통해 매년 약 40억원 규모로 150개 안팎의 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있다. 초기·잠재·스타·선도기업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전주기 지원체계를 기반으로 기술 경쟁력 강화와 시장 접근성 제고를 목표로 정책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오익현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은 “전남



(재)전남테크노파크는 최근 여수 소노캅 호텔에서 ‘The Bridge 전남 2025’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기업의 성장은 결국 ‘연결’에서 시작된다는 “시장 기회와 인재, 투자자와의 연결을 강화해 지속적인 도전 속에서 내실 있는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테크노파크가 기업의 실질적 조력자이자 성장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어린이 기후환경교육 ‘그린 캠페이너’ 실시 금호타이어, 초등생 1400명 대상…기후위기 대응 체험활동

금호타이어(대표 정일택)가 초록우산어린이재단(대표 황영기)과 함께 기후환경교육 ‘그린 캠페이너’ 활동을 이어갔다.

‘그린 캠페이너’ 활동은 아동들이 기후 변화의 대응 주제로 성장하도록 저탄소, 생물 다양성 등 다양한 환경 이슈와 관련된 캠페인을 직접 기획하고 실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올해는 지난 10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초등학생 1400명(서울, 경기도지 18개 초등학교 66개 학급)을 대상으로 기후 위기에 대한 이해 및 기후 위기 대응 캠페인 활동 등 4단계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기후환경교육에 참여했던 초등학교 교

사들은 ‘학생들이 직접 캠페인 활동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학습과 삶과 연계되는 수업 과정이 인상깊었다’, ‘학생들이 캠페인 문구를 만들고 피케팅 구호를 외치는 활동이 처음이라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환경에 대한 의지를 다지게 됐다’ 등 소감을 밝혔다.

강진구 경영지원팀장은 “금호타이어는 아동들이 기후시민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올바른 의식과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육을 통한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환경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오비맥주가 자사 대표 브랜드 ‘카스’와 ‘한맥’ 생산공장이 위치한 광주를 찾아 광주 북구청, 북부경찰서와 함께 ‘음주운전 없는 안전 귀가’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오비맥주, ‘음주운전 없는 안전 귀가’ 캠페인

광주 북구청·북부경찰 합동…여성안심귀갓길 조성 기부금 전달

오비맥주가 자사 대표 브랜드 ‘카스’와 ‘한맥’ 생산공장이 위치한 광주를 찾아 광주 북구청, 북부경찰서와 함께 ‘음주운전 없는 안전 귀가’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오비맥주는 시민들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북구청 앞 광장에서 ‘카스 올제로와 함께 음주운전 제로’ 캠페인 부스를 운영했다. 부스에서는 ‘음주운전 예방 OX 퀴즈’를 통해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였으며, 퀴즈를 맞힌 정답자에게는 오비맥주 무알코올 음료 카

스 올제로 1캔과 캠페인 주제가 새겨진 자일리틀 컵을 증정했다.

오비맥주는 또 북구 여성안심귀갓길 지원 사업 등에 1000만원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했다.

전날 북구청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는 구자범 수석 부사와 양우천 광주시장 등이 참석했다. 전달된 기부금은 광주시 여성안심귀갓길 안내관 설치와 취약계층 지원 물품 구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구자범 수석 부사장은 “연말을 앞두고 술자리가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광주 시민들의 안전한 귀가를 돕기 위해 북부경찰서와 함께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음주운전 예방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오비맥주는 음주운전 근절과 책임음주 문화 조성을 위해 연중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지난 9월 온라인에서 ‘음주운전 근절 대국민 서약 캠페인’과 ‘내 이바 해피빈 음주운전 근절 굿액션 캠페인’을 전개했으며, 한화생명블파크에서 오프라인 건전음주 응원 캠페인도 펼친 바 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농협 전남본부

‘수출 실무자 간담회’ 개최

농협 전남본부는 지난 3일 본부 4층 복합교육실에서 ‘전남농협 수출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출을 추진 중인 농협과 조공법인 실무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 관련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당면 현안과 향후 추진 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수출 실적 및 주요 품목 동향 공유 △우수 농식품 수출사례 전파 △사항추진 전략 협의 등의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구례 산수유 첫 해외 수출(산동농협) △배즙·숙취해소제 등 가공식품 수출(나주배원농협) △친환경 유기농 ‘하이 머문 쌀’의 미국 LA 수출(서영남농협) △두바이 한인마트 쌀 직수출(석곡농협) 등이 소개되며 전남 농산물의 해외 경쟁력과 수출 지속 가능성을 재확인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

병의원서 ‘온누리’ 사용 제외
전통시장 활성화 목적 안맞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가맹 업체에서 병의원을 제외하기로 했다.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책조정위원회(산중위 정조위)는 4일 중소벤처기업부와 당정 협의를 하고 이런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통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 전통시장법은 온누리상품권이 특정 업종으로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고자 일정 매출 이상 점포의 가맹을 제한하고, 부정 유통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당정은 병의원 등 전문업종에 대한 가맹 제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원이 산중위 정조위원장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업종 기준 완화로 병의원도 혜택을 보면서 전통시장 활성화란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며 “당정은 병의원에 대한 가맹 제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병의원 이외에 다른 전문업종에 대한 제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정은 위기 소상공인을 조기에 발굴해 산제적 경영진단과 재기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